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와 정향변화

노형남*

【 차 례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정향변화
 - 2. 범주음운론에 의거한 의미소 ‘물, 불, 풀, 굴’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및 가설
 - 2. 측정 항목 도출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4. 표본의 일반적 특성
 - 5. 확인적 요인 분석
- IV. 퍼지셋에 의한 질적비교분석
- V.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지(認知)를 구성하는 의식의 기저 핵문에 물(水)을 뜻하는 형태 변이소 #-ur-#가 존재한다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직증적 대상 지시어 용법을 준수한 정향변화에 함의된 요소로서 지명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명에서 물(水), 불(火), 풀(草), 굴(洞窟)의 의미역 내지는 의미장에 따른 일정한 지정된 방향 즉 정향을 갖는 언어변화인 정향변화가 존재한다는 논거를 찾아내어 이를 퍼지셋 방법론이 추구하는 질적비교분석과의 조화가 향후 기호학 연구에 기여할 바를 기대하면서 검정한다.

지명에는 물(水)의 기호학적 의미소가 핵심을 이루며 이와 관련된 동위소로서 불

* 고려대학교

(火), 풀(草), 굴(窟)의 정향변화가 유의미하다는 [연구 가설 1]을 비롯하여 이를 레비스트로스의 요리 삼각형과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2], 그리고 상기 연구 가설 1을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3]을 설정하고 이를 정성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한다.

언중의 뇌리에 각인시킬 만한 언어기호를 가추법으로 환기하여 재구하고 확산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되 언중의 음미학을 연구 가설 검정에서 확인함으로써 물(水)의 의미소와 연계할 수 있는 물, 불, 풀, 굴(동굴), 골짜기, 눈(雪), 산악, 초원, 쥐불, 해송, 주류, 물올타리(아리울), 얼음, 담장, 녹음, 삼림, 토사, 백사장 등의 의미소와 동위소에 관련된 지명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살펴본다.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와 정향변화를 입증하기 위하여 물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스페인 항구에 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하되 상술한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물과 직결된 항구의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능력, 배후시장 발달정도 등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여덟 개의 퍼지셋 이상형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스페인 항구의 퍼지 소속점수를 도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항구가 유형별로 소속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항구가 향후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유형의 항구가 장차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추단한다.

열쇠어: 지명, 의미소, 동의소, 정향변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I. 서론

본 연구는 언어를 사회 약정(convention)에 따라 사용하는 언중(言衆)의 기호학 다시 말해서, 언어 인지(認知; cognition)를 구성하는 의식의 기저에 가장 기본 구조의 핵문(核文; kernel sentence)인 물(water)을 뜻하는 형태 변이소(形態 變異素; morphemic alternants) #-ur-#가 존재한다는 연구 가설을 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이는 ‘나, 여기, 지금’이라는 직증적(直證的) 대상 지시어 용법(deixis)을 준수한 정향변화에 함의된 요소가 대세(tendency)로서 언중의 두뇌에 내재된 핵문을 grain이나

1) I. Laspiur. “Azentu Diakritikoa Eibarko Euskaran”, *Euskera* XXIV(2). 1978, pp.175-268.

gist 내지는 core로서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이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풍요로운 에코 청정 지역의 지명(toponym)에서 발견되는데 이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명에서 물(水), 불(火), 풀(草), 굴(洞窟)의 의미역(意味役; θ theta-rôle) 내지는 의미장(意味場)에 따른 일정한 지정된 방향 즉 정향을 갖는 언어변화인 정향변화(drift)가 존재한다는 논거를 찾아내어 이를 퍼지셋(fs/QCA 2.5) 방법론이 추구하는 질적비교분석과의 조화가 향후 기호학 연구에 기여할 바를 기대하면서 검토하려고 한다.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라면, 이를테면, 아무런 계획 없이 방문한 지역의 전설과 역사가 담긴 고성(古城), 마을, 유적에 반하여 예상에 없던 일정을 고쳐 가면서까지 적어도 사나흘 정도는 자발적으로 더 숙박하면서 여행하기를 원하는 길로는 독일의 ‘낭만가도’만한 곳이 없다. 지역별로 고유한 특색을 보존한 테마형 가도가 많아 훌륭한 방문지로서 최적격이다. 이러한 낭만가도는 언어기호에 의해 가추법(假推法; abduction)으로 환기되는 ‘로맨틱한 사랑의 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래한 평범한 도로명칭이었던 것이 일탈변격으로 전의된 것이다. 이는 마치 한 가문이 몰락한 전설을 그린 영화 ‘The Legend of Fall’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을의 전설’이라고 한 것이 도리어 영화의 화면 구성과 경치의 아름다움에 부합되어 낭만적으로 그럴싸하게 인정받는 의미소와 동일한 논거다. 이로써 낭만가도라는 명칭은 결국 이름만 들어도 이미 읽고 경험한 적이 있는 인식인 데자뤼(déjà lu)의 로맨틱한 분위기로 딱 차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이 들도록 뇌리에 낙인효과로써 각인을 남기고 방문하기 이전부터 꿈에 가득 차올라 큰 기대감에 부풀도록 만드는 가추법과 아울러 실제 여행에서 얻을 기대치의 시니피에(signifié)를 환기하여 시니피앙(signifiant)을 재구(再構)함으로써 이를 적절한 복고풍 마케팅으로 확산(擴散)시키도록 만드는 브랜딩(branding)의 결과치임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공통인 #-ur-#라는

음운을 범주음운론에서 다룬다. 이는 물(水)을 뜻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언어의 지명을 일별하더라도 충분히 수궁할 수 있듯이 자생적이지도 내생적 요소다. 이론적 배경인 범주음운론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인류는 해당 음운을 공통으로 다양하게 변용하여 일관된 언어정향의 지명으로 확산시켜 왔다. 물론 이에 상극 개념인 불(火)에도 동일한 음운이 존재하며 이와 아울러 서로 상극인 물과 불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풀(草)과 굴(窟)에서는 해당 음운의 변이형(allophone)이 -ul로 종결되거나 -uø로써 마지막 음소 -r#가 공집합으로 소멸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어휘군은 기본 범주인 물(ur)에 근간을 둔다. 예를 들어, 라인강 부근의 옛 도시로서 대학가 주변인지라 전체 분위기가 밝고 활기차며 마리엔부르크 요새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로크 풍의 레지텐츠 궁전이 유명한 뷔르츠부르크는 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서 풀(草)이라는 뜻의 wurz와 물(水)에 인접한 언덕이라는 burg가 합성된 지명이다. 백조의 성이 있는 뤼센도 그러하듯이 울창하게 우거진 풀과 굴이 공존하는 배산임수 격의 언덕 위 명당을 일컫는다. 이 외에도 상술한 음운의 변이형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무수한 지명들은 본 연구의 각주 내용들과 대동소이 하다.

상술한 바를 검정하기 위하여 물과 직결된 범주음운을 지닌 스페인 항구 28개를 질적으로 조사하기에 버거운가 하면, 양적조사를 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본 연구에서는 fs/QCA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려고 한다. 스페인 28개 항구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우선 $2^3=8$ 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fs/QCA 2.5를 활용하여 퍼지 함수유형을 분류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 항구 가운데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항구를 예측하거나 소멸의 위기마저 추단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호학 연구에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 대한 이론, 방법론, 절차, 실증분석 결과치를 다루되 적은 수의 집중적 질적 사례중심 연구를 비롯하여 큰 수의 광범위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양적 변수중심 연구 사이에서 30가지 정도의 주요한 속성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이의 인과적

시계열 변화에 따른 중범위 일반화를 도모하는 융합의 다양성을 지향한다. 이로써 단일요인이 아닌 복합원인을 규명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단점인 다중공선성과 독립된 영향력의 한계성 해결에 유의미 하다고 보아 퍼지셋 다중결합적 인과관계 분석은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결합관계를 용인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다중 결합원인 분석은 사례 수와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Stata Fuzzy 모듈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퍼지점수로 변환하는 최소배열 축소집합(Minimum Configuration Reduction Set)을 제시한다.²⁾ 이로써 퍼지셋 방법론이 추구하는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조화가 향후 기호학 연구에 기여할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향변화

분과학문 사이의 장벽이 높았던 과거에는 언감생심 융합할 생각조차 못 했던 것을 이제는 학제간 소통 차원에서 통섭하는 관념이 새로운 제안으로 부각되는데 연구 가설로 설정하는 것이 직관적 행위 다시 말해서, 마치 찰나의 섬광처럼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가추법이다. 지각적 판단과 가추법 사이의 유일한 차이라면 지각 판단에 대해서는 논리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상호 명확한 구분 없이 연계되어 있어서 과학 추론의 최초 초기화 단계를 이룬다. 창조적 창발성을 지닌 아이디어의 확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논증 형태인 가추법은 본능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측면 사이의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에 의존하여 잠재의식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한다. 귀환법 혹은 가설 추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가추법은 일정한

2) K. G. Longest & Stephen Vaisey. Fuzzy: a program for perform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in Stata. *The Stata Journal* 81(1), 2008. pp.79-104.

종류의 감정과 상호 연관되어 감정을 시니피어로 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귀납법이나 연역법과 구분되는 특성이다.³⁾ 이는 본시 움베르토 에코와 토마스 A. 시빅(1994)의 『The Sign of Three』에서 비롯되어 삼각논증으로 반증가능한 일반화에 원용된다.⁴⁾ 물론 이 때 가소성을 지닌 시니피어를 언어기호로 가시화 하는 시니피앙의 재구도 내적재구나 비교재구로 기능한다. 이것이 바로 가추법에 의한 논리적 실증이며 지명에 존재하는 물, 불, 풀, 굴(窟)의 기호학 의미소와 관련된 정향변화가 지닌 편재성 내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외를 구제하거나 기각하는 준거가 된다.

논증 추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⁵⁾ 가설이 추리에 의해 어떤 특정한 경우와 관련이 있게 된 이미 관례화된 법칙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추법은 어떤 추리를 설명하기 위한 잠정적 수용이다. 이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례뿐만 아니라 법칙을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가설 또는 과도하게 규정화 된 가추법은 법칙이 자동이나 반자동으로 주어지는 규정화를 통해 해석하는 단계에서조차 제아무리 최소한이더라도 전제된다. 발화 맥락과 담화 공동 텍스트에 연구 가설을 전제로 하여 사례별로 추리함으로써 과도하게 규정화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미비하게 규정화 된 가추법은 보편 지식에 근거하여 가소성을 지닌 법칙이 선택되면서 추리한다. 이를 엄밀한 의미의 가추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옳고 그름은 유보된 상태에서 검토를 대기하는 수용 상태다.⁷⁾ 이는 마치 전체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 가설에 준거하여

3) T. A. Sebeok & J. Umiker-Sebeok. "You Know My Method: A Juxtaposition of Charles S. Peirce and Sherlock Holmes." *Semiotica* 26 (2/3), 1979. pp.203-250.

4) U. Eco & T. A. Sebeok. *The Sign of Three: Dupin, Holmes, Peirc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5) T. A. Sebeok & J. Umiker-Sebeok. 앞의 글.

6)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140-143쪽.

7) P. R. Thagard "Semiosis and Hypothetic Inference in Ch. S. Peirce." *Versus*, 1978.

폐쇄적이고 크게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 경로를 설정하는 유추(analogy)와 같다.

셋째, 창조적 창발성에 의하여 새로운 법칙을 제정하되 음미학이 가미된다. 이미 정립된 과학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혁명적 발견에 해당된다.⁸⁾ 보편적이고 세속적인 상식에 의해 어떤 법칙이 적절하기만 하면 그것은 이미 경험세계 안에서 유효하다고 믿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확실성이 결여된 사례를 일컫는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예기치 않은 지명인 ‘낭만가도’라는 명칭의 유래이며 언중의 음미학에 별다른 거부감이 생기지 않으면 도리어 기발한 창의적 창발성으로 찬양 받는 역설이 성립되기도 한다. 영화 ‘가을의 전설’이라는 제목 오역도 이에 해당된다.

넷째, 가추법이란 초기화 단계의 가추법으로 상정한 연구 가설이 경험에 의한 바와 동일한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데 과도하게 규정화되거나 미비하게 규정화 된 경우 상위단계의 추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그것은 이미 검증된 실제 경험에서 법칙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건의 본성인 원인뿐만 아니라 공정한 추측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만약 새로운 법칙이 검증된다면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마저 초래되므로 가추법은 분석대상보다 상위의 혁명적 과학 발견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조사에서조차도 상위과학을 추구하고 상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필수적이다.

상술한 바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 및 정향변화에서 비록 초기화 단계에서 발상은 로마로 연계되는 도로라는 명칭을 제정하는 수준으로 단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세계가 찬양하는 ‘낭만가도는 낭만적인 것이다’는 사례가 성립되는 과정을 귀납법 및 연역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pp.19-20.

8) 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표 1〉 귀납법, 연역법, 가추법의 비교

[귀납법]	사례 : 낭만가도는 낭만적인 것이다. 결과 : 낭만가도는 아름답다. 법칙 : 낭만적인 것은 모두 아름답다.
[연역법]	법칙 : 낭만적인 것은 모두 아름답다. 사례 : 낭만가도는 낭만적인 것이다. 결과 : 낭만가도는 아름답다.
[가추법]	법칙 : 낭만적인 것은 모두 아름답다. 결과 : 낭만가도는 아름답다. 사례 : 낭만가도는 낭만적인 것이다.

자료 출처: 논자 작성.

2. 범주음운론에 의거한 의미소 ‘물, 불, 풀, 굴’

지역공동체 구성원끼리 인정투쟁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가추법으로 환기하고 이와 관련된 시니피앙을 각인시켜 재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갈등과 소통이 차별화 되고 다양한 변모를 보이는 역치성(liminoid)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활성화란 이율배반 현상으로서 단일성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형식을 창출하며 상반된 수렴성이 출현함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제는 시니피에라는 것이 상이한 형식과 기능을 표상하여 전달하고 승계되며 적극적 해석의 문제의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된 광의의 맥락에서 재해석 하려는 가소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위험사회는 확산 이론에 따라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성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적이면서도 다중학제간 정성적 융합 연구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기적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위치를 설정하는 확산 이론의 검정을 위해 보편적 행태에 따른 체계를 비롯하여 고유한 사고방식이나 효율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유한 개체의 속성마저도 가추법에 따라 환기하고 재구하며 확산하도록 만드는 범주음운론을 원용한다. 이의 일환으로서 세계 언어에 공

통된 음운 구조 #-ur-#를 지닌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가 물(水)인 사실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변이형 -er-, -ar-, -or-, -ul-, -ir-, -il-도 물에 관련된 지명 기호학 의미소를 포함하는 것에 유의한다.⁹⁾ 음운 구조는 지명 기호학 의미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음운을 구성하는 요소는 범주 표지와 연결되고 적절한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결합된 적격의 음운 연결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면 지명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에 존재하는 -ur-, -er-, -ar-, -or-, -ul-, -ir-, -il- 음운이 물과 아울러 이에 대척되는 불(火), 그리고 풀(草)과 굴(窟)의 지명 기호학 의미소도 내포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사 규칙에 의미 해석 규칙이 적용되듯이 음소가 음운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표현의 집합으로 간주하여 동위소(isotopie)에 바탕이 될 지명 기호학 의미소로 발전 거점의 경로설정을 모색하는 논거로

9) 물에 공유하는 음운 ur를 기본으로 하여 샘물, 우물(iturri), 강물(ibai<ura), 실개천물(erreka<ureka), 빗물(euri), 눈물(elur), 산혈, 혈곡, 골짜기의 물(zintzur), 폭포물(txurust), 물레방아(errota<urrota), 마을(ri, erri) 등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소 범주 구성에 일정한 유형의 음운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는 여러 언어에도 유사 현상이 많음을 지명(地名)만 일별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0) 물, 강, 도시, 산, 샘에서 ur가 내포된 음절을 사용한다. 음운 ur는 주민이나 문화에 따른 변형과 변이를 겪어 u, uh, ug, ur로 변형되어 산과 강을 뜻하는 ua, ura, urá, uhá, úha, uáng, guád, wát, (g)uida, uibe(g), unds), unda, uur, uide, ure 형태소를 형성한다. 음성학적 변이와 주요 언어에서의 전사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의 기본 음성은 u-á (전사하면 uu-á)이다. 이는 바스크어 urá, 아랍어 guád, 라틴어 ac-uá, 까스띠야어 aguá에서 발견된다. 영어는 u 대신 w를 사용하여 wát (uo로 발음)가 되었고 게르만어 wa는 va로 변화되었다. 앵글로색슨은 w를 b로 발음하여 ua-Asser가 wasser로 되듯이 f와 b 사이의 w로 발음하였다. 핀란드 북쪽 지방에서 호수를 Jaure 또는 Haure로 지칭하여 au로 발음한다. o(<eau)를 물로 말하는 불어는 원시 단어인 surse를 보존하여 샘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많은 호수 명칭과 (Lob-Nor)라든가 남미의 강과 산에 ua, 아랍 지역에는 uá를 사용하였다. 그리이스, 아드리아 지역, 유고슬라비아, 고대 일리아는 u를 v로 대체하였다. 코카서스 남쪽 우라르투 왕국에서 Van 호수는 우르미아 호수와 쌍벽을 이루어 Uan 또는 Uran 형태의 주저 현상을 발견한다. 노르웨이 호수에서도 [v] 소리를 기본으로 한 음소가 발견된다. v는 중세까지 까스띠야어에서 v 또는 u 음성으로 표기되어 abogado, augado, avogado, abogado 등으로 변천하였다. 바스크 국경의 강 명칭에 Uraxes, Cordillera Aralar가 있으며 코카서스 산맥의 Araxes 강, Ararat 산, Urumea 강이 상기 논지를 대변한다.

I. Laspiur “Azentu Diakritikoa Eibarko Euskaran”, *Euskera* XXIV(2). 1978, pp.175-268.

채택한다. 이를 범주음운론에 입각하여 도표를 만들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 및 동위소

[o]	ㄱ	굴(谷)	해돋이 놀(노을; 黎明)	돌(奇巖怪石 壯觀)	를	물	불
[ɔ] [i] [u]	一	글	늘	들(들판, 草原)	를	믈	블
[u] [o]	ㄷ	굴(洞窟)	눈>눈(雪)	둘	를	물(水)	불(火)

솔(松) 海松	을(<을>알>아리(水)	줄	출	쿨	툴	폴	홀(미추홀 같은地名)
슬	을>얼음(氷雪)	줄	출	쿨	툴	폴	홀>흙(土), 海邊 모래(白沙場)
술(酒) 燒酒	울(울타리)	줄	출	쿨	툴	폴(草, 綠陰, 窟 森林)	홀

출처 : 논자 작성

여기에서 천연자원이 ‘물’이라는 의미소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위 도표의 좌상방 세계음성기호로부터 우하방 홀(土), 해변의 모래(砂)까지 [오] [으] [우] 음가에 따라 기본어휘와 변이음에 의한 형태소 변형을 재해석 하면 산수가 수려한 골짜기, 산악이나 해저의 동굴, 해돋이 새벽 놀(黎明의 노을), 눈(雪)을 활용한 시설과 동계 스포츠, 기암괴석의 험준한 산악의 웅장한 바위, 초원, 계곡의 물, 굴과 암자까지 태우는 산 불, 바닷가 동굴의 절개, 온갖 주류, 알(<을>에서 파생하여 동네의 물을 뜻하는 아리(水)에서 비롯된 물울타리(아리울), 얼음(氷, 氷雪)을 활용한 낚시나 스포츠, 물가(水邊地帶)의 영역 표시용 각종 담장, 풀이 우거져 이루는 흐드러진 녹음이 짙은 경치와 무성한 굴 그리고 우거진 삼림, 수변지대의 지명에 나타나는 홀이라는 명칭, 흙(土)에서 유래하는 토사(土砂)와 청정한 해변의 모래(白沙場)가 물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언어자료체는 공시적 언어형태, 통시적 형태소, 재구 형태소를 포함하는 어형에 범주문법 모형에 입각한 범주음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하고 시니피앙의 유표성 규약과 음절 구조의 강도 규약을 도입하는 것을 채택한다.¹¹⁾ 이는 원시 언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주 대륙, 아시아의 언어 화석을 비롯하여 일반 언어학의 흔적을 가지고 파생된 단어를 조합하거나 언어학적 일반화의 보편요소를 지니고 생성된 각종 시니피앙에서 발견된다. 이로써 어휘부의 통사 규칙부는 기본 표현의 결합 방식으로써 파생 표현을 생성하는 경향을 규명할 수 있다. 그것은 통사 규칙이란 상응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규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조 규칙에 의거하여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표시계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범주의 구성요소가 결합하는 것에 의해 물, 불, 풀, 굴 의미소와 관련된 점증적 표현을 형성하는 과정을 명시한다. 따라서 음운의 합성원리를 준수하면 물, 불, 풀, 굴에 관련된 어휘 형성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로써 범주 이론 체계는 분절음이 서로 다른 범주를 가지더라도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므로 물, 불, 풀, 굴 의미소에 연관된 어휘 음절의 구성을 동일한 범주음운론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범주음운론이 합성원리를 추종하면서 분절음이 결합되어 음절을 형성하

11) 강, 샘, 분수, 호수, 늪지, 물웅덩이는 ur 또는 i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San Sebastián은 Izurun(i와 u가 쓰인 명사)이며 늪지를 의미한다. 이처럼 늪지와 물 웅덩이가 r을 잃고 u만을 포함한 채 명명되었다. 이를 유럽의 Jaure, Mazures, 메소포타미아 Ur-mia, 아시아 Nor, Tso, Nur, Hu,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Ur가 대변한다. 카나리아 제도와 선사시대의 주민을 구안체 족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ur가 섬을 의미하던 시대의 고어인 uranches에서 유래한 것이다. Urland가 섬(물로 둘러싸인 땅)의 일반적인 원시 명칭에서 Irlanda와 Islandia 출현하였다. 이 또한 해안이나 작은 반도에 돌출된 바위의 ur를 바탕으로 한 명칭으로서 산 세바스티안의 Urgull 암산과 지브롤터의 Uran 암산 등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암산 위에 위치한 Ceuta가 과거에는 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Ceuta가 Ceurta라고 불렸던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일본 태평양 해류를 kuroshio(어두운 강이라는 의미의 짙은 색 해류)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바다, 강, 배, 산맥의 ur도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서 피레네, 알프스, 코카서스, 우랄, 티베트의 산맥은 ur이며 히말라야의 본명은 Gaurisankar이다. 따라서 강 이름은 협곡을 통해 산으로 전이되었으며 산은 강 이름을 수용한다.

A. Tovar, "Vasco y lenguas caucásicas: indicios tipológicos", *Euskera* XXIV(2). 1979. pp.13-33.

고 분절음과 음절 사이에는 계층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를 음소 배열 규칙으로 간주하여 적절한 음절 구조를 비롯해 음보, 단어, 음운론적 표현 규칙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불, 풀, 굴과 관련된 지명의 보편적 공명도 계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강도를 나타내는 계층으로서 일반적 음절 구조는 핵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머리 자음과 어미 자음의 위치에 오는 자음 군이 경상구조를 보이는데 개별 범주에 여러 가지 음소의 부류를 부여하되 분절음의 상대적 공명도가 음절의 주변으로 갈수록 감쇠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음운 부문에서 기본 표현은 음소로 구성하고 음운 구조를 형성하는 규칙은 음소 배열에 대한 제약을 수반한다.

따라서 별도로 음절을 구분하는 규칙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범주음운론이란 합성원리를 준수하여 분절음이 결합되어 음절을 형성하고 분절음과 음절 사이에 계층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범주음운론은 통사 규칙과 의미를 해석하는 규칙 사이에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인다. 음소를 배열하는 규칙은 음성을 해석하는 규칙과 일대일의 상응관계를 이루며 통사 표시와 의미 표시도 일대일의 대응을 가진다. 의미를 해석하는 규칙은 부분적인 의미 해석과 결합되어 파생된 결합 표현의 의미를 정의한다. 이렇듯 부분 해석의 총합은 결합 표현의 의미와 동일하다. 음성 해석 규칙은 동일한 과정이나 분절음의 음성 해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¹²⁾

음절 계층의 음소를 배열하고 결합하는 규칙과 음성을 해석하는 규칙

12) 범주음운론은 음성 규칙의 범주 표현 도출 위해 음성 해석규칙이 음소 배열규칙에 적용된다. *ur-reká* (또는 *er-reká*)(실개천, 시냇물(川))라든가 각자의 예시에서 보듯이 음소 위치에 따라 다양한 음성 교체형을 보유함으로써 음소의 음성 표현이 음성 해석규칙으로 기술되고 음성 해석규칙도 의미 해석 규칙과 동일시된다. 음소 배열규칙이 머리 자음과 각운을 결합시켜 음절을 형성하는데 음성 해석규칙을 적용하되 음절보다 더 큰 상위 계층 구조에는 규칙 적용이 불가하다. 음성 해석규칙과 음소 배열규칙은 제한된 영역에만 적용되어 *e/a/o(<eau)* 모음변환이나 차용이 일어나고 *ir-ún(<*ur-anzu)*의 *i*-는 강을 뜻하는 *i-bai* 단어와 유관하므로 가능한 모음변환으로서 동일한 의미소를 포함하게 되어 *t-or-tosa* (**t-ur-ichae*) [샘(泉)의 명칭]라든가 *ur-reká*로부터 변형한 *er-reká* [실개천(川)]이 가능하다.

이 음절의 영역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범주음운론의 하위 단위에서 상위 단위로 상향식 적용이 이루어지며 음성을 해석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음소를 배열하는 규칙에 의해 도출된 표현에 국한된다. 음성 해석 규칙은 의미 해석 규칙을 적용하는 영역과 유사하여 통사, 의미 해석, 음소 배열, 음성 해석 규칙은 준동형(準同形)을 형성하며 적격제약은 단어를 결합시켜 구나 문장을 이루는 통사 규칙에 분절음을 결합시켜 음절이나 단어를 형성하는 음운 규칙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음절 계층에서 상위 단계의 음성 해석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은 연쇄 음절의 상대적 흔들림 현상이다. 따라서 물, 불, 풀, 굴의 미소에 관련된 어휘 형성을 분석하면 분절음 연결체에 운율 구조를 부여하고 흔들림 표지를 굳이 유표하지 않더라도 연결체 내에 존재하는 음절의 상대적 흔들림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환언하면, 언중의 음미학 경향을 추단하는 것도 가능하여 음운 현상의 추상성을 인정하고 규칙 적용에 부분 제약을 가하여 일반화를 도모함으로써 물, 불, 풀, 굴과 관련된 의미소에 포함된 낱말을 활용하여 칭명하는 것과 일정한 유형의 음을 선택하는 정향변화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심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치임을 수궁하게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낭만가도가 유명해진 것은 오랫동안 천연자원, 문화, 역사가 어우러져 누적된 정향변화의 소산이다. 그 노력이 보람을 안겨 오늘날 독일 방문의 필수 코스로서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이 찾는 지명으로 되었다. 상당수의 도시와 마을은 전쟁의 포화에 무참히 파괴되었지만 전후 완벽하게 복구하였다. 그런가 하면 거듭되는 전쟁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의 상흔을

겪지 않아 중세 17세기의 파수 순라꾼이 넓찍한 나무 막대를 일정한 시차로 타격을 가하면서 순찰을 도는 생활상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대를 착각하리만치 아름다운 전통을 여실히 보여주는 덩켈스벨(Dinkelsbhuël)은 어린이 축제로도 유명하다.

중세의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모습 그리고 각각의 도시와 마을에 흠뻑 배어있는 독특한 빛깔과 향기는 낭만가도를 찾는 방문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안겨준다. 바이에른 지방의 알프스, 숲, 호수가 이루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자리 잡은 뤼센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월트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모델로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백조의 전설 때문에 ‘백조의 성’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이 성채가 멀리에서는 꿈결에 보는 안개 낀 성처럼 아름답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돌이 아니라 시멘트로 개조되고 슬픈 전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아주 멀리서라도 조금일지언정 보이는 창문이 있는 곳이라면 높은 가격을 마다않고 앞 다투어 그곳에서 하루 밤을 묵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경전을 국적 불문하고 벌이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이미 가추법에 의해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가 환기되어 재구하고 확산되어 있다는 증거다. 독일의 낭만가도는 세계대전 이후 전범자 국가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불명예 시니피에를 개선하려고 정책적으로 시니피앙을 주조하여 개발한 지명 신조어(coined word)다.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지명에는 물(水)의 기호학적 의미소가 핵심을 이루며 이의 동위소로서 불(火), 풀(草), 굴(窟)의 정향변화가 유의미하다.

[연구 가설 2] 상기 연구 가설 1을 레비 스트로스의 요리 삼각형과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

[연구 가설 3] 상기 연구 가설 1을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

2. 측정 항목 도출

소쉬르(F. de Saussure)의 제 3차 일반언어학강의에서 역사 지리언어학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세계 언어 지도 작성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¹³⁾ 그리고 미국의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 Charles Sanders Peirce는 정언 명제(categorical proposition)에서 지도는 도상이자 지표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지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호는 동시에 닮음과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¹⁴⁾ 하지만 경험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지표만큼이나 도상도 경험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논란이다. 도상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을 위한 수용능력(capacity for experience)이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수용력은 닮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해석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에 제시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¹⁵⁾ 이때 언중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지표다. 그것은 지표가 경험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표시이기 때문이다.¹⁶⁾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상징은 정신에 있는 관념으로서 대상과 연결되어 상징을 통해서만 새로운 상징이 성장한다는 논리다.¹⁷⁾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기호학은 자율적 기호(Zeichen sui generis)의 개념을 전개한다.¹⁸⁾ 그레마스(A. J. Greimas)는 리투아니아 출신 기호학자로서 Maupassant,

13) 김성도, 「소쉬르」,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44쪽.

14) 이윤희, 「퍼스」,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94쪽.

15) 같은 글.

16) 같은 글, 95쪽.

17) 같은 글.

18) 박여성, 「음악기호학」,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153쪽.

Tournier, Calvino, Tanizaki 등의 문학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 작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 방법론을 행동자 모형, 서사 도식, 기호 사각형으로 제안함으로써 1962년부터 1992년까지 행동기호학(Sémiotique de l'action)과 정념기호학(Sémiotique de passion)의 이론과 방법론을 구조주의 인식론에 입각하여 철학, 심리학, 인류학, 기호론을 구축하고 파리 기호학파의 기초를 확립하였다¹⁹⁾. 감각, 지각, 정념 차원의 연구를 거부하고 의미 작용의 생성 원리에 관심을 갖고 구조 분석을 텍스트에 적용함으로써 1960년부터 1980년대를 행동기호학의 시대라고 명명하게 만들었다. 31세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인 「1830년대의 의상: 당시 신문에 나타난 의상 어휘들의 시론」에서 복식 언어를 어휘론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프랑스 그로노블 대학에서 불어 방언을 공부하였기에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신문 기사에 실린 1830년대의 프랑스 복식에 관련된 어휘들을 추출하여 분류한 어휘론 분석을 시도했다. 매체에 나타난 옷,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의 2천 개가 넘는 어휘소를 도출하고 분류하여 1830년대 복식사를 어휘론 차원에서 규명하여 접근 방식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가치 있는 논문으로 정평이 나있다.²⁰⁾ 그는 소쉬르가 제안한 기호학(semiologie)의 개념은 흥미롭지만 기호학 이론과 방법론을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의 핵심 주제어인 행동자(actantialite), 양태성(modalite), 의미 생성(parcours generatif), 동위소 개념의 논리적 구상에 직간접으로 영감을 준 엘름슬레브가 1957년 발표한 논문「구조 의미론을 위하여」와 1958년 엘름슬레브의 주저인『언어 이론 서설』의 영어판에 영향을 받아 연구 영역의 방향을 설정하였다.²¹⁾ 그는 1963년에서 1964년까지 파리 포앵카레 연구소의 계량언어학 센터에서 구조 의미론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기호학 이론서인 『구조 의미론』에서 표

19) 백승국, 「그레마스」,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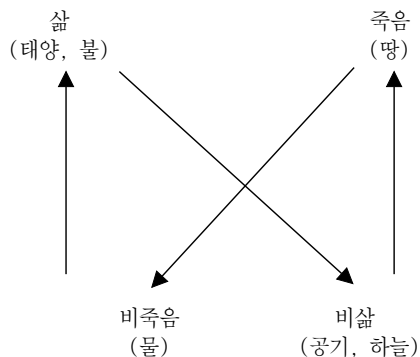
20) 같은 글, 56쪽.

21) 같은 글, 58쪽.

현과 내용 그리고 형식과 실체의 유형화를 피력하였다.²²⁾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성적인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4. 표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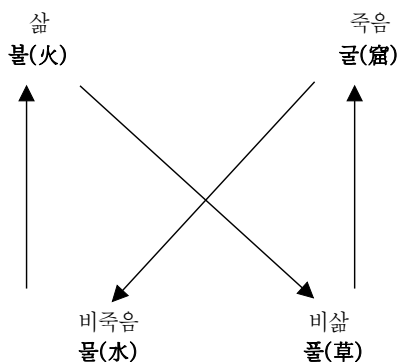
의미작용의 가치 체계를 기호 사각형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논리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의미 작용의 기본 구조인 이항대립과 이분법 사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의미 생성의 사고 체계를 논리적으로 가시화 하려고 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 모파상의 소설 『두 친구(Deux amis)』에서 삶과 죽음의 이항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호 사각형 이론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레마스는 텍스트의 표층 구조에서 포착되는 시각 기호인 형상소(figures)를 삶과 죽음의 의미소 축(semique categorie)으로 세분화 하여 의미론 차원에서 가치론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삶과 비죽음이 구축하는 긍정 축은 행복의 정념 가치를 보여주고 죽음과 비삶이 구축하는 부정 축은 불행의 정념 가치를 나타낸다. 삶과 죽음의 정념을 기호 사각형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²³⁾



22) 같은 글.

23) 같은 글, 69쪽.

정념 차원에서 삶과 비죽음의 의미소 축은 태양과 물의 연접으로 행복의 가치를 형성하고 죽음과 비삶의 의미소 축은 땅과 하늘의 연접으로 불행의 가치를 형성한다. 또한 행동자의 서사 행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주체의 첫 번째 서사 행로는 삶의 의미소 축을 출발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그리고 삶을 부정하는 의미소 축인 비삶을 통과해 비삶이 전제하는 죽음의 의미소 축으로 도달된다. 다른 주체의 두 번째 서사 행로는 죽음의 의미소 축을 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다. 또한 죽음을 부정하는 주체는 모순관계를 설정하는 비죽음을 통과해 삶의 의미소 축에서 그의 행로를 마친다. 결국 기호 사각형은 4가지 범주의 의미소 축이 창출하는 의미 작용과 주체의 서사 행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시각화 도식이다.²⁴⁾ 이를 다시 본 연구의 논거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5. 확인적 요인 분석

상술한 바를 레비 스토로스의 요리 삼각형과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할 수 있겠다. 언어학자 야콥슨의 큰 영향을 받은 장 끌로드 레비-스토르는 『신화론 1: 날것과 익힌 것』에서 음식을 통해 다양한 민족의 신화

24) 같은 글,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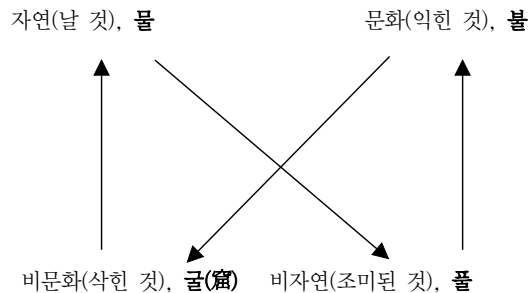
구조를 분석했고 자연과 문화로 구성된 민족사를 조명했다. 음식 기호에 숨겨진 요리 코드를 해독함으로써 다양한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여러 민족의 신화 구조에 숨겨진 요리 코드를 도출해 날 것/익힌 것/삭힌 것으로 구성된 요리 삼각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뉴벨 칼레도니아 토착 원주민의 신화 구조를 바탕으로 도출된 도식이다. 음식의 조리 과정을 토대로 날 것, 익힌 것, 썩힌 것으로 음식의 상태를 세분화 하였다. 그리고 요리 삼각형의 세 가지 신화소를 구분하는 변별적 자질을 불의 가열 방법과 요리 테크닉으로 규정한다. 불을 이용하는 음식의 가열 체계에 따라 구운 것은 날 것으로 규정하고 그을린 것은 익힌 것 그리고 삶은 것은 썩힌 것(삭힌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구운 것(날 것)이 그을린 것(익힌 것)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은 문화 과정이 작용한 것이고 구운 것(날 것) 또는 그을린 것(익힌 것)에서 삶은 것(썩힌 것, 삭힌 것)으로의 전이는 자연 과정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익힌 것은 문화 변형이 작용한 것이고 썩힌 것(삭힌 것)은 자연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다양한 민족의 요리 체계를 레비 스토로스의 요리 삼각형이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성이 있다. 그것은 각 민족이 사용하는 가열 체계는 음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음식의 레시피와 요리 테크닉도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이다.²⁵⁾

더군다나 레비 스토로스는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 사고로 분석하면서도 자연(썩힌 것, 날 것)과 문화(익힌 것)를 구분하는 변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날 것, 썩힌 것, 삭힌 것(pourri)을 구분하는 변별 자질은 명확하지 않아서 날 것의 변별 자질을 구운 것으로 규정한다면 날 생선 요리는 어떤 범주에 분류시켜야 할지, 썩힌 것의 변별 자질이 삶은 것이라면 삶지 않고 삭힌 음식인 발효 식품은 어떤 범주에 분류시켜야 될지 의문점을 갖게 만든다.²⁶⁾

25) 같은 글, 72-73쪽.

26) 같은 글, 74쪽.

결국 레비 스토로스가 제안한 요리 삼각형 모형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해답을 찾기 위해 요리 삼각형의 세 가지 신화소를 기호 사각형을 적용해 음식 형태에 대한 새로운 변별 자질을 규정하고 이것이 창출하는 음식 맛을 분류하기 위하여 이를 기호 사각형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IV. 퍼지셋에 의한 질적비교분석

상술한 바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물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스페인 항구에 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세계 역사상 한 때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과 함께 세계 5대양을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 제패한 적이 있었던 스페인 항만청 보고서에 의하면 스페인의 총 28개 항구 중에는 이미 세계인에게 저명한 까탈란의 바르셀로나(Barcelona), 지름 13미터의 대형 솔에서 빠에야를 만들어 함께 공식하면서 폭죽놀이를 하는 발렌시아(Valencia),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에 과거의 척박한 항구 이미지를 쇄신한 빌바오(Bilbao) 같은 항구가 있는가 하면, 해당 업종 종사자 외에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알리칸테(Alicante)라든가 우엘바(Huelva) 같은 항구도 있다. 이들이 현재 스페인에서 어느 정도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는 향후 어떤 항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어떤 항구가 쇠락할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제기된다.²⁷⁾

지금까지 향구의 유형을 퍼지셋을 통하여 분석한 기존연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자는 스페인 향구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퍼지셋이 아닌 다른 향구 유형 연구들로부터 참고하되 새로운 요인을 선정하여 결정요인으로 채택한다. 그것은 음운 구조란 지명 기호학 의미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음운을 구성하는 요소는 범주 표지와 연결되고 적절한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가 결합된 적격의 음운 연결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면 지명뿐만 아니라 일반 어휘에 존재하는 $-ur-$, $-er-$, $-ar-$, $-or-$, $-ul-$, $-ir-$, $-il-$ 음운이 물과 아울러 이에 대척되는 불(火), 그리고 풀(草)과 굴(窟)의 지명 기호학 의미소도 내포하고 있음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사 규칙에 의미 해석 규칙이 적용되듯이 음소가 음운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 표현의 집합으로 간주하여 동위소에 근간이 될 지명 기호학 의미소로 발전 거점의 경로설정을 모색하는 논거를 연구 가설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지명 기호학의 의미소와 정향변화를 입증하기 위하여 물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스페인 향구에 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하려는 까닭은 질적인 사례중심으로 적은 수의 집중적인 복잡성을 추구하는 사례 중심 연구와 아울러 양적인 변수 중심으로 큰 수의 광범위한 일반화에 주목하는 변수 중심 연구 사이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

27) 찰스 라긴(Ragin 1987, 2000, 2008a)에 의해 태동되고 발전된 것을 리쇼(Rihoux 2003, 2006), 크비스트(Kvist 1999, 2006), 최(Choi 2006)의 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었다. 또한 fsQCA 소프트웨어의 방법론적 설명으로는 라긴(Ragin 1995, 2000, 2008b, 2009)을 필두로 켄트(Kent 2008), 슈나이더와 바게만(Schneider and Wagemann 2010), 바게만과 슈나이더(Wagemann and Schneider 2010)의 연구로 진화되었다. 그리고 롱이스트와 바이세이(Longest and Vaisey 2008)의 Stata Fuzzy 모듈이「국제 STATA 저널」에 검정·소개됨으로써 fsQCA 2.0이라는 통계 프로그램 이외에도 소프트웨어에서의 방법론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의 확장을 소개한 안상훈(2002)의 이후,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장점을 안내한 최영준(2009)과 정해식(2012)으로 연계되었다. C. C. Ragin.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1쪽

문이다.²⁸⁾ 이의 핵심은 변수 중심 전략과 사례 중심 전략을 초월하여 종류와 정도의 다양성을 지향한다. 전자는 질적 차이로서 복합 속성을 배열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차이인 반면에 후자는 양적 차이로서 범주에 속해 있는 정도의 다양성이다.²⁹⁾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다. 사례를 지형으로 이해하면서 모집단을 유연하고 조작 가능한 구성체로 이해하며 구체적 맥락에서 질적 변화를 다룸으로써 결과 중심 연구를 강조하되 인과관계를 결합적이고도 이질적으로 파악하는 사례 중심 접근의 실용적 특징을 지향한다.³⁰⁾ 이로써 30개 미만의 중범위 사례의 속성이 모두 동질적이지 않기에 이질적 속성으로 유형과 정도의 차이를 동시에 분석한다. 그리고 추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기존 변수에 해당하는 지수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설령 사용하더라도 변수 중심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변수 내지는 사례를 지향하는 연구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실용적 특징도 강조한다. 또한 사례를 맥락으로 이해하고 지형으로 간주하는 논거는 해당 사례를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의 혼합으로 이해하는 것에 적합하다.³¹⁾ 따라서 맥락 문제는 사례에 대한 지형적 접근의 핵심이자 개별 변수가 사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혼합으로써 사례 유형을 이해하는 관전이다.

일반적으로 항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해거리, 배후시장, 컨테이너 처리능력 등이 대표적이다.³²⁾ 이들 가운데 배후시장과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해당 항구가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부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스페인 항구의 기호학적 동위성을 추단하는 결정요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하지만 항해거리는 본 연구에서의 사례분석 대상인 항구가 모두 스페

28) C. C. Ragin. 2000. 앞의 글, 21쪽.

29) 같은 글, 149쪽.

30) 같은 글, 39-40쪽.

31) 같은 글, 66쪽.

32) 신계선, 「항구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부산 신항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韓國港灣經濟學會誌』, 韓國港灣經濟學會, 23(1), 2007.

인 이베리아 반도 내에 존재하는 항구이기에 그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여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대신 스페인 항구 중에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항구와 적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주변항구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항구 물동량을 결정요인으로 채택한다. 이로써 HV=중심항구(항구물동량이 많은 경우), CN=컨테이너 중심, MK=배후 시장 발달을 의미하고 소문자는 각각 항구물동량이 적은 경우, 일반화물 중심, 배후시장 미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호를 부여하기로 한다.

상술한 스페인 항구의 유형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인 항구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능력, 배후시장 발달 정도를 본 연구의 변수로 선택한다. 이 세 가지 변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작하기로 한다. 항구 물동량은 해당 항구가 스페인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항구 역할(HV)을 수행하는지를 결정하므로 그 변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해당 항구의 전체 물동량 중에서 컨테이너 처리량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적용하여 해당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능력(CN)으로 적용한다. 배후시장의 발달 정도(MK)는 해당 항구가 속해 있는 주(州)의 연간 1인당 GDP를 적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요인의 여집합(~)이 되는 요인은 그 약어를 각각 hv, cn, mk라고 칭함으로써 주변항구(즉 항구물동량이 적은 경우), 일반화물중심, 배후시장 미발달 수준이라고 기호학적 표기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상술한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이상형을 구성하게 되면 <표 1>과 같이 $2^3=8$ 개의 이상형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항구의 결정요인으로 구성된 이상형 유형

구분	이상형	퍼지셋 조합
1	배후시장이 발달한 컨테이너중심의 중심항구 (완전형 중심항구)	$HV*CN*MK$
2	배후시장이 미발달한 컨테이너중심의 중심항구 (컨테이너 의존형 중심항구)	$HV*CN*mk$

구분	이상형	퍼지셋 조합
3	배후시장이 발달한 일반화물중심의 중심항구 (배후시장 의존형 중심항구)	HV*cn*MK
4	배후시장이 미발달한 일반화물중심의 중심항구 (침체유력 중심항구)	HV*cn*mk
5	배후시장이 발달한 컨테이너중심의 주변항구 (발전유력 주변항구)	hv*CN*MK
6	배후시장이 미발달한 컨테이너중심의 주변항구 (발전가능 주변항구-컨테이너 의존)	hv*CN*mk
7	배후시장이 발달한 일반화물중심의 주변항구 (발전가능 주변항구-배후시장 의존)	hv*cn*MK
8	배후시장이 미발달한 일반화물중심의 주변항구 (위기항구)	hv*cn*mk

출처: 논자 작성

본 연구에서 추출한 8개 이상형 유형에 스페인의 어떤 항구가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스페인의 총 28개 항구를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과 같이 원자료 변수(자연로그)를 fs/QCA 2.5를 활용하여 수치부여에서 퍼지변수로 변환하고 이후 <표 1>에서 제시한 이상형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 값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0.95, 0.5, 0.05에 해당하는 세 개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fs/QCA의 개발자인 Ragin은 표준화 작업을 지양하고 기준점 설정을 연구자가 논리적 근거를 통해 임의로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0.5 기준점은 불필요한 변량 제거를 위해 원점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중위값을 사용한다. 또한 퍼지셋 점수로 변환할 때 점수가 양극단으로 분포하도록 유도하여 집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0.95의 기준점은 지수화 점수 중 최대값에 0.95의 가중치를 주어 사용하고 최소값에 1.05의 가중치를 준 값을 0.05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음의 <표 2>에는 스페인 항구의 항구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비용, 배후시장 발달정도의 원자료 값과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제시되어 있다. 원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퍼지 점수를 도출하면 원자료 사이의 과도한

차이에 의해 그 값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여 자료를 조작한다. 그리고 <표 3>에는 fs/QCA 2.5에서 제공하는 수 치부여에 따른 퍼지 점수와 이를 바탕으로 구한 퍼지 여집합(fuzzy-not) 점수를 제시한다.

〈표 2〉 원자료 값과 자연로그 값

항구	HV(톤)	CN(%)	MK(유로)	lnHV	lnCN	lnMK
ACor	12,823,974	0.4148%	12,372	16.3668	8.3303	9.4232
Alic	2,235,515	58.2444%	17,338	14.6200	13.2750	9.7607
Alme	5,354,484	1.2247%	11,823	15.4934	9.4131	9.3778
Avil	5,072,100	0.0066%	13,382	15.4393	4.1844	9.5017
Alge	83,266,316	63.8671%	11,823	18.2376	13.3671	9.3778
Cadí	3,696,972	24.9603%	16,361	15.1230	12.4276	9.7027
Bale	11,560,873	2.3207%	20,030	16.2631	10.0522	9.9050
Barc	41,487,422	41.9430%	19,383	17.5409	12.9467	9.8722
Bilb	28,952,727	22.0778%	19,542	17.1812	12.3049	9.8803
Cart	4,700,096	17.4872%	13,328	15.3631	12.0718	9.4976
Cast	12,908,699	16.3987%	15,185	16.3734	12.0075	9.6281
Ceut	2,066,953	3.4572%	14,350	14.5416	10.4508	9.5715
Cibr	8,496,385	0.0941%	12,372	15.9552	6.8471	9.4232
Gijó	17,127,841	3.4499%	13,382	16.6562	10.4487	9.5017
Huel	28,506,305	0.0002%	11,823	17.1656	0.7770	9.3778
Palm	22,341,818	63.7080%	15,570	16.9220	13.3646	9.6531
Mála	5,047,298	74.4195%	16,585	15.4344	13.5201	9.7163
Pont	1,858,637	19.2204%	12,372	14.4354	12.1663	9.4232
Meli	954,679	26.5057%	14,132	13.7691	12.4877	9.5562
Motr	2,014,947	2.7612%	11,823	14.5161	10.2260	9.3778
Pasa	3,049,656	0.0000%	19,542	14.9305	0.0000	9.8803
Cruz	13,682,896	18.3822%	15,570	16.4317	12.1217	9.6531
Sant	5,094,859	0.2765%	14,891	15.4437	7.9249	9.6085
Sevi	4,572,780	26.9140%	11,823	15.3356	12.5030	9.3778
Tarr	33,072,048	6.1284%	19,383	17.3142	11.0233	9.8722
Vale	65,662,845	79.2510%	15,185	18.0000	13.5830	9.6281
Vigo	3,738,126	59.6129%	12,372	15.1341	13.2982	9.4232
Vila	1,007,477	23.0433%	12,372	13.8230	12.3477	9.4232

출처: 논자 작성

〈표 3〉 퍼지 점수 및 퍼지 여집합(fuzzy-not) 점수

항구명	fHV	fCN	fMK	fhv(\sim fHV)	fcn(\sim fCN)	fmk(\sim fMK)
ACor	0.73	0.27	0.04	0.27	0.73	0.96
Alic	0.17	0.92	0.88	0.83	0.08	0.12
Alme	0.5	0.33	0.02	0.5	0.67	0.98
Avil	0.48	0.12	0.19	0.52	0.88	0.81
Alge	0.96	0.93	0.02	0.04	0.07	0.98
Cadí	0.34	0.66	0.8	0.66	0.34	0.2
Bale	0.7	0.37	0.97	0.3	0.63	0.03
Barc	0.91	0.85	0.96	0.09	0.15	0.04
Bilb	0.87	0.6	0.96	0.13	0.4	0.04
Cart	0.44	0.5	0.18	0.56	0.5	0.82
Cast	0.73	0.49	0.65	0.27	0.51	0.35
Ceut	0.15	0.39	0.5	0.85	0.61	0.5
Cibr	0.63	0.21	0.04	0.37	0.79	0.96
Gijó	0.79	0.39	0.19	0.21	0.61	0.81
Huel	0.87	0.05	0.02	0.13	0.95	0.98
Palm	0.83	0.93	0.7	0.17	0.07	0.3
Mála	0.47	0.95	0.82	0.53	0.05	0.18
Pont	0.13	0.52	0.04	0.87	0.48	0.96
Meli	0.04	0.69	0.42	0.96	0.31	0.58
Motr	0.15	0.38	0.02	0.85	0.62	0.98
Pasa	0.27	0.04	0.96	0.73	0.96	0.04
Cruz	0.74	0.5	0.7	0.26	0.5	0.3
Sant	0.48	0.25	0.6	0.52	0.75	0.4
Sevi	0.43	0.69	0.02	0.57	0.31	0.98
Tarr	0.88	0.43	0.96	0.12	0.57	0.04
Vale	0.94	0.96	0.65	0.06	0.04	0.35
Vigo	0.34	0.92	0.04	0.66	0.08	0.96
Vila	0.05	0.62	0.04	0.95	0.38	0.96

출처: 논자 작성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가 되는 스페인 28개 항구의 원점수 출처는 <표 4>와 같다.

〈표 4〉 항구의 원점수 출처

변 수	출처(모두 2012년 기준)
항구의 연간 물동량(톤)	스페인 항구청(http://www.puertos.es/)
항구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톤)	스페인 항구청(http://www.puertos.es/)
항구가 속한 주(州)의 연간 1인당 GDP	스페인 통계청(http://www.ine.es/)

상술한 바와 같이 도출된 퍼지 점수를 바탕으로 최소값을 선택하는 퍼지 곱하기(fuzzy-and) 기능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퍼지 소속점수를 도출하면 <표 4>와 같고 <표 5>에는 각 유형에 속하는 항구 명칭이 정리되어 있다. 한편, 퍼지 소속점수가 0.5에 해당하여 이른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퍼지셋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혼합형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점이 현저하다.

〈표 5〉 이상형 유형의 소속점수 및 최종유형(고딕체로 표기)

항구명	HCM	HCm	HcM	Hcm	hCM	hCm	hcM	hcm
ACor	0.04	0.27	0.04	0.73	0.04	0.27	0.04	0.27
Alic	0.17	0.12	0.08	0.08	0.83	0.12	0.08	0.08
Alme	0.02	0.33	0.02	0.5	0.02	0.33	0.02	0.5
Avil	0.12	0.12	0.19	0.48	0.12	0.12	0.19	0.52
Alge	0.02	0.93	0.02	0.07	0.02	0.04	0.02	0.04
Cadi	0.34	0.2	0.34	0.2	0.66	0.2	0.34	0.2
Bale	0.37	0.03	0.63	0.03	0.3	0.03	0.3	0.03
Barc	0.85	0.04	0.15	0.04	0.09	0.04	0.09	0.04
Bilb	0.6	0.04	0.4	0.04	0.13	0.04	0.13	0.04
Cart	0.18	0.44	0.18	0.44	0.18	0.5	0.18	0.5
Cast	0.49	0.35	0.51	0.35	0.27	0.27	0.27	0.27
Ceut	0.15	0.15	0.15	0.15	0.39	0.39	0.5	0.5
Cibr	0.04	0.21	0.04	0.63	0.04	0.21	0.04	0.37
Gijó	0.19	0.39	0.19	0.61	0.19	0.21	0.19	0.21
Huel	0.02	0.05	0.02	0.87	0.02	0.05	0.02	0.13
Palm	0.7	0.3	0.07	0.07	0.17	0.17	0.07	0.07
Mála	0.47	0.18	0.05	0.05	0.53	0.18	0.05	0.05
Pont	0.04	0.13	0.04	0.13	0.04	0.52	0.04	0.48

항구명	HCM	HCm	HcM	Hcm	hCM	hCm	hcM	hcm
Meli	0.04	0.04	0.04	0.04	0.42	0.58	0.31	0.31
Motr	0.02	0.15	0.02	0.15	0.02	0.38	0.02	0.62
Pasa	0.04	0.04	0.27	0.04	0.04	0.04	0.73	0.04
Cruz	0.5	0.3	0.5	0.3	0.26	0.26	0.26	0.26
Sant	0.25	0.25	0.48	0.4	0.25	0.25	0.52	0.4
Sevi	0.02	0.43	0.02	0.31	0.02	0.57	0.02	0.31
Tarr	0.43	0.04	0.57	0.04	0.12	0.04	0.12	0.04
Vale	0.65	0.35	0.04	0.04	0.06	0.06	0.04	0.04
Vigo	0.04	0.34	0.04	0.08	0.04	0.66	0.04	0.08
Vila	0.04	0.05	0.04	0.05	0.04	0.62	0.04	0.38

출처: 논자 작성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상형 유형의 항구 내역을 살펴보면 향후 스페인 항구 가운데 어떤 항구가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항구는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표 6〉 이상형 유형의 스페인 항구 내역

이상형	스페인의 사례 항구
완전형 중심항구(HCM)	Barcelona(0.85), Bilbao, Las Palmas, Santa Cruz de Tenerife(0.5), Valencia - 총 5곳
컨테이너 의존형 중심항구(HCm)	Bahía de Algeciras - 총 1곳
배후시장 의존형 중심항구(HcM)	Baleares, Castellón, Santa Cruz de Tenerife(0.5), Tarragona - 총 4곳
침체유력 중심항구(Hcm)	A coruña, Almería(0.5), Ferrol-San Cibrao, Gijón, Huelva(0.87) - 총 5곳
발전유력 주변항구(hCM)	Alicante(0.83), Bahía de Cadíz, Málaga - 총 3곳
발전가능 주변항구(컨테이너 의존형, hCm)	Cartagena(0.5), Marin y Ria de Pontevedra, Melilla, Sevilla, Vigo, Vilagarcia - 총 6곳
발전가능 주변항구(배후시장 의존형, hcm)	Ceuta(0.5), Pasajes, Santander - 총 3곳
위기항구(hcm)	Avilés, Cartagena(0.5), Ceuta(0.5), Motril(0.62) - 총 4곳

출처: 논자 작성

첫째, <표 5>의 완전형 중심항구에 속하는 항구는 현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페인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탄탄한 배후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한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Barcelona)는 0.85의 가장 높은 퍼지 소속점수를 보이는데 이후에도 현행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컨테이너 의존형 중심항구와 배후시장 의존형 중심항구는 각각 컨테이너와 배후시장에 의존하여 추후에도 그 중심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침체유력 항구 유형에 소속된 항구는 저조한 컨테이너 처리능력과 배후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향후 그 지위가 약화되어 주변항구로 밀려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엘바(Huelva)는 0.87의 가장 높은 퍼지 소속 점수를 부여받아 가까운 시일 내에 중심항구의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발전가능 주변항구 유형으로 분류된 항구는 각각 우수한 컨테이너 처리능력과 탄탄한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향후 중심항구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발전유력 주변항구는 비록 현재는 스페인에서 주변적 항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우수한 컨테이너 처리능력과 탄탄한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그 지위가 향상되어 중심항구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알리칸테(Alicante)는 0.83의 가장 높은 퍼지 소속점수를 부여받음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중심항구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위기항구로 분류된 항구는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부족한데다가 배후시장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현재 주변항구로서의 지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에서 현저하게 높은 소속 점수를 받은 항구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0.62의 퍼지 소속점수를 받은 모트릴(Motril)은 개발 노선에서 도태되어 폐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지명에는 물(水)의 기호학적 의미소가 핵심을 이루며 이와 관련된 동위소로서 불(火), 풀(草), 굴(窟)의 정향변화가 유의미하다는 [연구 가설 1]을 비롯하여 이를 레비 스트로스의 요리 삼각형과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2], 그리고 상기 연구 가설 1을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으로 검정 가능하다는 [연구 가설 3]을 설정하고 이를 정성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언중의 뇌리에 각인시킬 만한 언어기호를 가추법으로 환기하여 재구하고 확산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되 언중의 음미학을 연구 가설 검정에서 확인함으로써 물(水)의 의미소와 연계할 수 있는 물, 불, 풀, 굴(동굴), 골짜기, 눈(雪), 산악, 초원, 쥐불, 해송, 주류, 물울타리(아리울), 얼음, 담장, 녹음, 삼림, 토사, 백사장 등의 의미소와 동위소에 관련된 지명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하여 물과 직결된 항구의 물동량, 컨테이너 처리능력, 배후시장 발달정도 등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여덟 개의 퍼지셋 이상형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스페인 28개 항구의 퍼지 소속점수를 도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항구가 유형별로 소속되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유형의 항구가 향후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유형의 항구가 장차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현저하게 각 유형의 퍼지 소속점수가 높은 항구를 별도로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바르셀로나(Barcelona)는 현재 중심항구 지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알리칸테(Alicante)는 오늘날 주변항구의 지위에 있지만 미래에 중심항구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단된다. 셋째, 우엘바(Huelva)는 지금은 중심항구 지위에 있지만 앞으로 그 지위를 상실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며 모뜨릴(Motril)은 장차 도태되어 지명 자체가 아예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도, 「소쉬르」,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3-49쪽.
- 노형남, 「문화소통에 의한 형태소 변화의 사회심리학적 가추」. 한국언어학회 2010년 하계학술대회 2010년 6월 11일 군산대학교 발표논문. 2010.
- 민기채,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44, 2014. 223-259쪽.
- 박여성, 「음악기호학」,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151-168쪽.
- 백승국, 「그레마스」,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53-83쪽.
- 상지윤, 「출산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OECD 국가에 대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7. 47쪽.
- 신계선, 「항구경쟁력 결정요인 분석과 부산 신행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韓國港灣經濟學會誌』. 韓國港灣經濟學會. 23(1). 2007.
- 안상훈,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의 서설적 이해」, 『상황과 복지』 13, 2002. 47-71쪽.
- 움베르토 에코 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인간사랑. 1994.
- 이윤희, 「퍼스」,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87-95쪽.
- 정해식,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 사회정책 연구: 복지국가와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제임스 야콥 리슈카, 『퍼스 기호학의 이해』. 이윤희 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3.
- 최영준,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15(3), 2009. 307-337쪽.
- 최용호, 「기호학과 문학」, 『기호학의 고전, 교육, 그리고 실천』. 2015 제3회 서울기호학여름학교. 한국기호학회. SEMIOSIS. 2015. 99-148쪽.
- Choi, Y. J. Pension reforms i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Ph.D. thesis. University of Bath. 2006.
- Eco, U. & Sebeok, T. A. *The Sign of Three: Dupin, Holmes, Peirce*. Bloomington

-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8.
-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 Paris, Hachette. 1966.
- _____ *Dictionnaire de l'ancien française*, Paris, Larousse, 1969.
- _____ *Du sens*, Paris, Seuil, 1970.
- _____ *Essai de semiotique poetique*, Paris, Larousse, 1972.
- _____ *Du sens II*, Paris, Seuil, 1983.
- _____ *De l'imperfection*, Paris, Perigueux, 1987.
- Greimas, A. J. & Fontanille, J. *La semiotique des passions*, Seuil. 1991.
- Greimas, A. J. et Keane, T. M. *Dictionnaire de moyen français*, Paris, Larousse. 1992.
- Kent, R. Using fsQCA: a brief guide and workshop for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Department of Marketing University of Stirling. In <http://www.ccsr.ac.uk/publications/teaching/2008-10.pdf>, 2014/07/10. 2008.
-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Kvist, J. Welfare reform in the Nordic countries in the 1990s: using fuzzy set theory assess conformity to ideal typ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3), 1999. pp.231-252.
- _____. Diversity, ideal types and fuzzy sets in comparative welfare state research. In B. Rihoux & H. Grimm(eds.). *Innovative comparative methods for policy analysis: beyond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vide*, New York: Springer-Verlag New York Inc. 2006.
- Laspiur, I. “Azentu Diakritikoa Eibarko Euskarán”, *Euskera* XXIV(2). 1978. pp.175-268.
- Longest, K. G. & Stephen Vaisey. Fuzzy: a program for perform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in Stata. *The Stata Journal* 81(1), 2008. pp.79-104.
- Peirce, C. S. “Abduction and Induction.” In *Philosophical Writings of Peirce*, ed. by Justus Buchler. N.Y.: Dover. 1955.
- _____. “Deduction, Induction, and Hypothesis.” In *Chance, Love, and Logic*. N.Y.: Braziller. 1956.
- Ragin, C. C.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 _____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o study configurations. in U.

- Kelle(eds.) *In Computer-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5.
- _____ *Fuzzy set Social Science*,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_____ Set relations in social research: evaluating their consistency and coverage. *Political Analysis* 14(3), 2006. pp.291-310.
- _____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a.
- _____ *User's Guide to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ucson, Arizona: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Arizona. 2008b.
- _____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using fuzzy sets(fsQCA) in B. Rihoux & C. Ragin(eds.). *Configurational Comparative Methods: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nd Related Techniques*. Thousand Oaks, CA and London: Sage Publications. 2009.
- Ragin, C. C. & Sonnett, J. Between complexity and parsimony: limited diversity, counterfactual cases, and comparative analysis. In <http://www.sscnet.ucla.edu/soc/soc237/papers/ragin.pdf>, 2014/07/10. 2004.
- Rihoux, B.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orlds?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view on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eld Methods* 15(4), 2003. pp.351-365.
- _____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nd related systematic comparative methods. *International Sociology* 21(5), 2006. pp.679-706.
- Schneider, C. Q. & Wagemann, C. Standards of good practice in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nd fuzzy sets. *Comparative Sociology* 9(3), 2010. pp.397-418.
- Sebeok, T. A. & Umiker-Sebeok, J. "You Know My Method: A Juxtaposition of Charles S. Peirce and Sherlock Holmes." *Semiotica* 26 (2/3), 1979. pp.203-250.
- Thagard, P. R. "Semiosis and Hypothetic Inference in Ch. S. Peirce." *Versus*, 1978. pp.19-20.
- Tovar, A. "Vasco y lenguas caucásicas: indicios tipológicos", *Euskera* XXIV(2). 1979. pp.13-33.
- Wagemann, C. & Schneider C. Q.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and fuzzy sets: agenda for a research approach and a data analysis technique. *Comparative Sociology* 9, 2010. pp.376-396.

Toponyms' Semiotic Sememe and Drift

Noh, Hyung-Nam

To analyze toponyms' semiotic sememe it is necessary to visualize isotopies according to semiotics consisted of coined word up to drift. So this study suggests firstly, *ad hoc* hypotheses concerning semiotic sememe of water, secondly, to verify it with *le carré sémiotique* created by A. J. Greimas and thirdly, to prove it with triangle of provisions discussed by Jean Claude Levi-Strausse, because universal toponyms contain #-ur-# morphemic alternants from the viewpoint of categorical phonology based on isotopies: fire, grass and cave.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heuristics on Spanish harbors' probability of semiotic sememe of water treating with the fsQCA(fuzzy 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and a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developed by Charles Ragin as a converge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to compliment each other's disadvantages. This paper deals with the utilization of the software tools extended from fs/QCA 2.5 to the STATA fuzzy module to overcome the problems of verification. Moreover, specific procedures of fuzzy 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are useful fo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lication of fsQCA and fuzzy 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in the field of semiotic science: such as, heuristics on Spanish harbors' probability of toponyms' semiotic sememe and drift.

Key word : toponym, sememe, isotopies, drift,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투고일 : 2015. 11. 15. / 심사일 : 2015. 11. 30. / 심사완료일 : 2015. 12. 05.